

강진서 1만원 쓰면 5000원 돌려받는다



군, 하맥축제 연계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 진행 8월 특별 운영…최대 4건 참여·베스트 리뷰 추가 혜택

강진군이 오는 27일 개막하는 대표 여름 축제인 ‘제4회 강진 하맥축제’와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 점포로 유도하고, 실제 이용객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통해 지역 상권을 널리 알리는 소비 촉진 사업이다. 강진군은 축

제와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상생 정책의 하나로 기획했다.

행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4회 강진 하맥축제를 전후한 8월 한 달 동안 운영된다. 군은 기존 월 2건이던 참여 인정 건수를 최대 4건으로 확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강진군 소상공인 업소 이용 사진과 하맥축제 홍보물(포스터·현수막·

축제장 등)이 함께 담긴 사진을 촬영한 뒤, 1만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준비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50자 이상의 이용 후기를 게시하면 된다.

이후 지정된 네이버 폼(https://naver.me//FLyT6Jh8)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아울러 군은 내용이 충실하고 지역 상권 홍보 효과가 높은 게시물을 베스트 리뷰로 최대 50건 선정해 1만원의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기는 강진군청 누리집에 게시해 지역 우수 점포를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점

포 홍보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필수 해시태그는 #강진하맥축제 #강진가볼만한곳 #강진맛집 #강진소상공인 #강진내돈내산이며, 게시물 본문에는 이용한 업소의 상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1만원 이상 소비 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8월 한 달간 최대 4회까지 참여할 수 있어 총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베스트 리뷰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돼 최대 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참여를 희

망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착(chak)’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영수증 제출 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하맥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 소상공인 업소를 함께 이용하면서 축제의 열기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강진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진도 어린이 뮤지컬 ‘캣츠’ 성료 어린이·가족 등 400여명 관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과 진도군 문화도시센터는 최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어린이 뮤지컬 ‘캣츠’를 개최했으며, 어린이와 가족 등 약 400명이 공연을 관람하는 등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별별 예술극장’의 하나로,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공연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을 본 한 관람객은 “진도에서 아이와 함께 완성도 높은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아이가 공연에 푹 빠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진도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별별 예술극장’은 진도 곳곳을 찾아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고, 하반기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이어가며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최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무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청

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군민 목소리 담는다

표적집단 면접조사…군민 체감형 복지정책 발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최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6기 완도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분과에 대해 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복지 수요를 분석해 향후 4년간 복지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표적 집단 면접 조사는 복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실무 분과 위원인 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노인, 장애인, 가족, 자살 예방, 통합 사례 관리, 고령·주거 등 6개 복지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제6기 계획에 반영할 신규 복지 과제와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와 섬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독사 예방 및 정신 건강 지원 강화,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대,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복지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신 군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군민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 실천의 약속이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격정 없는 행복 복지 완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해남 노인일자리 사업 ‘폭염 안전’ 강화

활동시간 탄력 운영…폭염특보시 실외활동 중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해남군 노인일자리사업은 305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인 1384명이 실외활동을 하고 있어 폭염에 따른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폭염시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혹서기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활동 시작 시간을 탄력적으로 앞당기고, 폭염이 심화될 경우에는 최대 15시간까지 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안전교육이나 문화활동 등

으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쿨 토시와 모자,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활동시간 중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등 건강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읍·면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시간 운영 기준과 폭염 대응 물품 지급, 비상대응 체계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 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관리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읍·면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청

초대석



서영교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잉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정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이달의 이슈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타’·A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